

충주 종댕이길 충주호와 심향산을 휘도는 오솔길

충주호를 끼고 있는 종댕이길은 충주 풍경길 중 으뜸이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충주호의 물결과 바람, 겨울 산이 길동무를 한다. 호수와 겨울 산이 빛은 풍경이 깊고도 은은해 걷는 내내 청량하고 상쾌하며 눈이 심심할 틈이 없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천수영 기자

충북 충주는 ‘물의 도시’다. 남한강이 흐르고,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충주호를 품고 있어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 풍광이 아름답다. 풍광이 수려한 덕에 풍경길이 생겼는데, 문화유산과 역사유적지까지 두루 볼 수 있어 걷는 이들이 늘고 있다. 풍경길은 아름다운 호수길이 일품인 종댕이길(12km)을 비롯해 ‘비내길’(17km), ‘새재 넘어 소조령길’(36km), ‘중원문화길’

(23km), ‘사래실 가는 길’(12.4km), ‘대몽항쟁길’(4km), ‘반기문 꿈자락길’(9km), ‘하늘재길’(1.8km) 등이 있다. 풍경길은 8개 코스에 총 115.2km로 제각각 품은 풍경과 이야기는 다르지만 걷다 보면 비경이 넘친다. 종댕이길은 삼면이 호수에 둘러싸인 심향산(385m)을 휘도는 길로, ‘종댕이’(宗堂)라는 말은 인근 상종·하종 마을의 옛 이름

에서 유래된 것으로 충청도 사투리다. 심향산을 ‘종댕이산’이라고도 불렀다. 종댕이길은 3코스로 나뉘어 있는데 출발점은 모두 마즈막재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즈막재에서 출발해 심향산을 휘돌아 마즈막재로 돌아오는 1코스(7.3km)를 찾는데 느릿느릿 걸음으로 3시간이면 넉넉하다. 2코스(9.1km)는 심향산을 거쳐 충

주댐물문화관, 3코스(6.1km)는 도로변 댁을 따라 충주댐물문화관까지 걷는 길이다. 코스에 구애받지 않고 심향산을 휘도는 호수길(3.8km)만 걸어도 좋은데 1시간 반 정도면 가능하다. 이재식 충주시청 산림복지과 산림보호팀장은 “종댕이길은 새로 만든 길이 아니라 기존의 길을 찾아낸 것으로 인공적인 손질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렸다”면서 “산



종댕이길을 걷는 내내 호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눈이 심심할 틈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즈막재에서 출발해 하트 모양을 한 심향산을 돌아 마즈막재로 돌아오는 코스를 즐겨 찾는다.



길이라기보다 산책 코스에 가까워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숲길”이라고 말한다. 특히 하트 모양을 한 심향산 둘레길을 연인과 함께 걸으면 사람이 깊어진다고 귀띔한다.

호수와 숲을 끼고 걷는 풍경길

종댕이길은 주차장이 있는 마즈막재에서 시작한다. 마즈막재는 계명산과 이어져 있는 남산 사이의 고개로, 옛날 남산 아래 처형장이 있어 죄수들이 이 고개를 넘으면 살아오지 못해 마지막으로 넘는 고개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마즈막재 주차장 맞은편 언덕에는 대몽항쟁전승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높이 15m 탑 뒤 부조벽에는 “1253년 몽고의 5차 침입 시 충주성에서 70일간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은 대몽항쟁사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성안의 식량이 바닥나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방호별감 김윤후 장군의 뛰어난 지도력과 노비를 포함한 충주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해 몽고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새겨져 있다.

마즈막재에서 도로변 데크길을 따라가면 충주호 쪽으로 내려가는 이정표(숲 해설안내소 0.4km, 생태연못 0.3km)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솔길로 접어들면 졸참나무·신갈나무 등 참나무들이 무성하게 가지를 하늘로 뻗치고 있고, 발아래로는 부드러운 흙길이 밟힌다. 흙길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호수 쪽으로 내려가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원터정이 나온다. 원터정 바로 아래는 옛날 고을 원님이 살았던 곳으로 1983년 충주댐 건설로 수몰됐다. 고향을 잃은 이들 에겐 가슴 아픈 장소이겠지만 긴 세월이 지난 지금은 풍광도 즐기고 사색도 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바뀌었다. 원터정부터는 심향산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호반길이다. 오른쪽으로 충주호의 물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호수의 찬바람이 뺨을 때린다.

호수를 곁에 두고 걷다 보면 기존의 샘을 좀 더 넓게 파서 조성한 생태연못을 만나고, 좀 더 걸으면 ‘삼형제 나무’라고 불리는 참나무가 반긴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한 뿌리에서 세 줄기로 자라났다. 길에 몸을 맡기고 다시 걷다 보면 충주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제1조망대다. 푸른 하늘과 호수를 배경으로 새들의 휴식처인 수초 섬과 철새, 남산과 그 자락의 가옥들이 한 데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낸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풀리지 않던 가슴의 응어리까지 절로 없어진다.

산하리를 휘감으며 이어지는 오솔길을 걷다 보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는 종댕이 고개다. 안내판에 따르면 종댕이 고개를 한 번 넘을 때마다 한 달씩 젊어진다고 한다. 종댕이 고개를 넘으면 밍계정과 모자(母子)나무다. 모자나무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가 1m 높이에서 서로 맞닿아 가운데에 생긴 둥그런 공간이 마치 어머니의 뱃속을 연상시킨다.

호수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제2조망대에서는 최종진 시인의 시 ‘마타리꽃’이 말을 걸어온다. 월악산과 충주댐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2조망대에서 너와 지붕을 엮은 쉼터, 피톤치드 숲길을 쉬엄쉬엄 걷다 보면 소원바위가 막아선다. 바위 상단이 뾰족한 편이고 하단이 넓게 퍼진 집채만 한 바위다. 바위에 소망을 담은 글을 적어 매달거나 돌탑을 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소원을 빌고 난 뒤 발걸음을 옮기면 숲해설안내소와 출렁다리로 가는 길림길이다. 출렁이는 다리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맛도 색 다르다. 50m의 출렁다리를 건너 오르막길을 오르면 자동차로다. 이곳에서 왼쪽은 마즈막재이고, 오른쪽은 충주댐물문화관으로 이어진다.

시간과 체력이 된다면 마즈막재로 곧바로 되돌아가지 말고 숲해설안내소에서 심향산 정상으로 발길을 옮겨도 좋다. 숲해설안내소에서 심향산 정상까지는 1.2km로 숲이 깊고 가파른 경사길이어서 숨이 약간 빨라진다.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개웃나무, 갈참나무, 국수나무 등이 도열해 있고, 중간중간 시비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30여 분간 겨울산과 호수의 풍경을 즐기다 보면 정상에 닿는다. 심향산을 감싸고 흐르는 충주호의 시원한 물줄기를 굽어보고 내려오는 길은 0.7km로 15분이면 충분하다. 숲해설안내소에서 도로 옆 데크길을 따라 1.5km 내려오면 시발점 마즈막재다. 종댕이길은 새해를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충주호의 풍경을 즐기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 좋은 숲길이다.





❶ 충주호와 심향산을 휘도는 종댕이길은 마즈막재에서 시작한다. 마즈막재 주차장에서 도로를 따라가면 오솔길 진입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❷ 오솔길 진입로를 들어서면 흙길의 부드러움이 발끝으로 전해진다.



❸ 충주호를 발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원터정은 쉬어 가기에 좋은 곳이다. 길 중간중간에 정자와 쉼터, 조망대를 만난다.

❹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작은 생태연못. 이곳에서 숲해설안내소까지 0.9km, 마즈막재까지 0.8km다.



❺ 사이좋은 형제처럼 한 뿌리에서 세 줄기로 자라난 '삼형제 나무'. 나무들 사이로 충주호 물결이 내려다보인다.



❻ 충주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제1조망대. 영롱하게 반짝이는 호수의 풍광이 일품이다.



❼ 고개를 한 번 넘을 때마다 한 달씩 젊어진다는 종댕이 고개. 종댕이는 인근 상종·하종 마을의 옛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충청도 사투리다.



❽ 제2조망대를 지나면 너와 지붕을 엮은 쉼터가 나온다. 충주호 물빛을 바라보며 동행인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다.



❾ 충주호를 끼고 있는 종댕이길의 명물인 출렁다리. 다리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맛도 색다르다.



❿ 충주의 해맞이 명소 중 하나인 심향산 정상에 오르면 심향산을 감싸고 흐르는 충주호와 월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재충전소

충주의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충주호의 빼어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계명산 자락의 종댕이길과 충주호반을 둘러볼 때 베이스캠프로 삼아 하룻밤의 겨울 낭만을 즐기기에 적격이다.



충주시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계명산(鷄鳴山, 774m)은 산세도 아름답지만 충주호를 끼고 있어 호수를 발아래에 두고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이다. 계명지맥(鷄鳴枝脈)에 위치한 계명산은 원래 계족산, 오동산이라고 불렸다. 오동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오동산’(梧桐山)이라고 했다. 또 옛날에 지네가 하도 많아 ‘지네들의 천국’이었는데 한 촌로가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렸더니 어느 날 도인이 나타나 “지네는 닭과 상극이니 닭을 길러 보라”고 일러주어 그대로 하였던지 지네가 없어져 ‘계족산’(鷄足山)으로 불렸다고 한다. 1958년에 충주시 의회에서 닭이 울어 여명을 알리자는 취지로 ‘계명산’으로 개칭했지만 지금도 밤이면 지네들이 나와 달빛에 수군거린다고 한다. 계명산 기슭에 자리한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숲



계명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자연휴양림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충주호를 내려다보는
맛이 일품인 곳이다. 숲속의
집, 가족호텔, 정자, 전망대
등이 200m 반경 안에
밀집돼 있다.

속의 집, 가족호텔, 족구장, 체력단련시설, 정자, 전망대 등이 200m 반경 내에 밀집돼 있다. 관리 사무소에서 충주호 방향으로 오동나무·박달나무·잣나무·주목나무·산수유·목련나무·철쭉나무로 이름 붙인 산막 7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원룸형인 산수유에서는 창문을 통해 충주호반의 물결과 겨울 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시계 방향으로 산등성이에 무궁화·해당화·백합·영산홍·사과나무 산막이 박혀 있다. 가족호텔은 6인 객실과 20인 객실로 구성돼 있다. 계명산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전망대나 숙소에서 충주호를 굽어보는 경관이 아름답다.

휴양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숙소 앞으로 충주호가 펼쳐져 있어 외국의 호젓한 휴양지를 연상케 한다. 낙엽송과 소나무 숲속에는 다양한 식생이 있어 자연 관찰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지다. 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자연휴양림에서 계명산 정상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충주호의 풍광이 더욱 빼어나다. 충주호를 즐기는 세 가지 방법은 충주댐·물문화관과 전망대·댐정상길 등 둘러보기, 충주호반길과 충주호 옆산길 드라이브,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 즐기기 등이다.

인근 수안보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왕의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와 숙종이 휴양과 요양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지하 250m 암반층에서 솟구치는 온천수는 섭씨 53도로 피부 질환과 성인병 등에 유익한 양질의 온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Tip

【 이용 방법과 요금 】

충주시 충주호수루에 위치한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휴양 공간이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이다.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고, 침구·식기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단 수건을 포함한 세면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8월)·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월)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4인실(원룸) 6만 원/3만5천 원, 6인실(복층 다락방) 8만5천 원/ 6만5천 원, 8인실(복층 다락방) 11만 원/ 8만5천 원이고, 25인실(복층 다락방, 방 3개) 32만 원/ 26만 원

원룸형 가족호텔

6인실 8만5천 원/ 6만5천 원, 20인실 22만 원/ 15만 원

【 문의 】

계명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043-850-7313

【 가는 길 】

